

기 업 과 문 화 예 술 의 아 름 다 은 동 행

국립중앙도서관
주최/주관 : (사)고성문화재단
후원 : 문화재청 고성

Gyeongnam mecenat

2010.10 VOL.008



경남메세나대회에 초대합니다.

2010

경남메세나대회 「축제 한마당」 참가 안내(경남의 모든 기업)

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에 동참 하실 경남의 기업을 초대합니다. 메세나갤러리와 CEO문화공연, 예술동아리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올 한 해 따스했던 메세나 활동의 대미를 장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여 부문

- 메세나갤러리
공모대상 : 2010년 메세나 활동 사진 (기업 내 문화예술 활동,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각종 회사 기념일 공연 사진 등 3장 이상)
형식 : JPG파일 1.5MB이상(디카 원본 사진이면 가능)
(행사명/행사일시/행사내용/사진설명 등을 함께 보내주세요)
- CEO문화공연
연주, 시낭송, 자작 그림 등 평소 활동하고 계신 문화예술 역량을 펼쳐보이는 자리
- 예술동아리공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업 예술동아리의 공연

▶ 신청방법

경남메세나협의회 전화(055-285-5611)
이메일(gnmecenat@gnmecenat.or.kr)
웹하드(ID:mc0831 / PW:0831) 메세나갤러리 폴더

▶ 언제까지 : 2010. 11. 15(월)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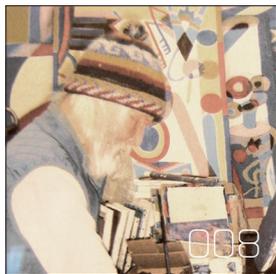
2010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FESTIVAL & AWARDS

메세나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자리가 될 '2010 경남메세나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0년 12월 2일(목) 17:00
- 장소 : 창원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룸
- 행사내용 : 메세나갤러리, 명사강연(엄정행의 해설이 있는 우리 가곡 여행), 시상식 및 결연식, 축제한마당, 만찬
- 참가신청 : 경남메세나협의회 (055-285-5611)

CONTENTS



- 004 휴(休)
가을, 북천역 _ 정이경
- 006 인터뷰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 008 예술과 삶
전혁림
- 012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STX _ 음악과 미술, 그리고 나눔
인산죽염촌(주) _ 제5회 인산가곡제
(주)화인테크놀로지 _ 창립12주년 가족음악회
(주)포스텍 _ 한국미협 진해지회 지역사회봉사
(주)화영 _ 김금희 무용단 영남루 공연
- 020 신규결연팀 소개
- 022 기업에서 피어나는 문화향기
STX종합기술원 미술작품전시
한국항공우주사업 풍물동아리 '민예'
- 024 예술과 나
통영옷칠미술관 _ 김성수 관장
- 028 예술과 여행
섬진강을 따라가는 하동예술기행
- 032 CEO in Mecenat
현대단조 _ 마평수 대표이사
- 034 우리회사 메세나
the 큰 병원 _ 백경희
- 036 예술의 희망이야기
즐거움 나눔티켓 _ 뮤지컬 <알라딘>
- 038 예술경영아카데미 · 문화경영세미나
- 040 스토리가 있는 문화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情이 있는 출판 고성오광대 정기공연
- 044 아티스트와 함께
연극배우 _ 한갑수 / 최동석
- 046 경남메세나 사업소개
- 048 Mecenat News · 문화 파발마
- 050 독자의 생각

가을, 북천역

-코스모스축제에 부쳐

정 이 경

그대가 있는 마을에서 가깝고도 먼 곳이지요
코스모스역으로 불리는 이곳은

지나가는 바람마저도 심심한 간이역일 뿐이지만
이맘때가 되면
높푸른 하늘엔 가벼운 구름 두둥실 거리고
어느 역에서 출발한지 알 순 없으나
어김없이 또 가을이 도착되었고
올해도 코스모스가 만발하였습니다

넘쳐나는 미소들로 화사해지고
일상에 지친 발걸음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곳입니다
놀빛마저도 아름다운 저녁해를 안고 돌아가도록
그대, 지금 상행선을 타고 오시어요
더러는 하행선 열차를 타고와도 좋겠지요
코스모스역으로 불리는 이곳으로





■ 정이경

경남 진해 출생 / 1994년 『십상』 신인상으로 등단 / 경남문협 경남시협 회원 가항문화회 동인 / 5인 시집 『시인은 다섯 개의 긴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 / 현 경남문협 시분과 이사 / 현 경남시인 협회 사무국장 / 현 창원군 다문화가정 한글 지도교사





새로운 문화예술의 모델, 주민주도형 문화예술

-김두관 경상남도지사

"주민주도형 문화 예술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

"감성과 상상력·창조의 힘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1번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취임 이후 100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시·군 순방,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그리고 많은 도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여망이나 도정에 바라는 방향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18개 시·군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청취하면서 서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간 도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지혜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 1번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김두관 도지사의 문화정책 핵심 키워드는 '주민주도형 문화예술' 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은 특정 소수의 생산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양식 하나하나가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향유하는 데는 계층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예술활동도 특정 전문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문화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데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영 동피랑 마을은 마을 주택과 담장에 벽화를 그려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고, 최근에는 양산시 하북면의 도로변 옹벽에 그린 '소나무숲' 그림에 새들이 날아들다 벽에 부딪혀 죽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주도형 문화예술은 문화향수 대상에서의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생산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약사항에서와 같이 주민이 직접 참여주체로 활동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근접형, 주민주도형 문화 예술사업을 육성, 발굴하여 주민주도형 문화예술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삶과 밀접한 문화예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도민들에게 또 지역에서 작품 활동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려운 숙제를 낸 것은 아닌지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예술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예술은 전문 예술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즐기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울이 아닌 경남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된 현 상황을 고정불변으로 여기면 문화예술은 전문성과 상업성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집 담벼락에 그린 그림을 보고 이웃이 감동을 받고, 이것에서 좀 더 나아가 동네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회관 벽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요. 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문화예술은 세계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성도 갖기 마련입니다.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이 세계성과 지역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문화는 특수성과 보편성, 개별성과 공통성,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문화예술의 중심이었던 서양의 시각으로 혹은 현재 세계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의 눈으로 보면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은 아직은 미흡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의 눈으로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문화예술이 우리 주변에 정착될 때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이 새로운 예술모델로서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는 매칭펀드 지원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세나 사업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며, 행정과 예술단체는 기업이 참여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도내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메세나 활동에 참여해 주어서 지금과 같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의 경쟁력이 곧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새로운 감성과 상상력, 창조적 힘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경남메세나운동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재정적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 지원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남메세나협의회와 메세나운동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畫家 전혁림

코발트블루의 화가, 색채의 마술사

글 _ 박서영

🐞 세상 모든 그림을 내가 다 잡아먹었다고 자부하고 있소

파란 물빛에 마음이 타겠다. 그만큼 전혁림의 파란색은 강렬하고 아름답다. 예술은 일상의 지리멸렬함에 틈을 내고 상처를 낸다. 그뿐이라. 심장의 떨림과 감동은 내가 살아있음을 문득 느끼게 해 준다. 몇 해 전 전혁림의 대작 앞에서 현기증을 느꼈었다. 한 쪽 벽을 차지한 거대한 통영바다, 그리고 그 바다에 빠진 듯한 태양의 붉은 빛은 기하학적 구도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다.

통영시 봉평동 미륵산 아래 ‘전혁림 미술관’에 가면 그가 닳을 내리고 노후를 보낸 아담한 미술관이 있다. 화가 전영근은 아버지인 전혁림을 고스란히 추억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1975년부터 30년 가까이 생활하던 집을 헐고, 전혁림과 그의 아들인 전영근의 작품을 세라믹타일로 제작한 미술관은 외관부터 아름다운 작품 앞에 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새로운 창조의 공간 속에서 화가는 타계할 때까지 그림만 그렸다. 미술관 입구에 서면 전혁림의 생전 모습이 보인다. 통영바다의 품으로 돌아간 화가의 평화로움이 묻어있는 사진을 올려다보며 이곳이 전혁림 미술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화가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고여있는 듯 흘러가는 그림 속의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색깔은 원시적인 힘을 느끼게 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태양을 숭배해왔다. 내가 처음 전혁림의 그림 앞에 섰을 때 느낀 것은 짙은 바다와 태양의 강렬한 주술성이었다. 전혁림은 통영바다가 삼켜버린 태양을 그려놓고 있었다. 그가 코발트블루의 화가, 색채의 마술사, 통영의 화가로 불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다는 쉬지 않고 지중해와 알래스카까지 흘러간다. 태양은 또 어떤가. 지구에서 단 하나뿐인 태양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보고 느낀다. 전혁림은 고향을 지켰지만 그의 작품세계는 우주와 자연, 인간, 그리고 고대벽화에서부터 현대에까지 그 뿌리를 이어 오고 있다. 2007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화가는 “세상 모든 그림을 내가 다 잡아먹었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소. 내 그림을 잘 보시오. 거기 불화(佛畵)도 있고, 성화(聖畵)도 있고, 입체과 그림도 있고, 초현실주의 그림도 있소.” 라고 했다. 이 말에는 노화가의 자부심이 스며있다.

미술평론가 구중열은 “그의 유화작업이 선명한 청색·남청색 또는 청록색을 위주로 하여 빨강·자주·노랑 및 그 중간 색조의 온갖 색면(色面) 형태들이 평면적 내지는 장식적 구성으로 독특한 화면을 창출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글을 읽고 전혁림이 세상의 “그림” 뿐만 아니라 “색깔”마저도 모두 잡아먹고, 빨아먹은 화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만큼 전혁림의 그림이 뿜어내는 색채는 깊고도 아름다우며, 신화적이라고 할 만큼 다양성을 갖고 있다. 바다와 흙, 사람과 사물, 그리고 우주를 떠도는 바람과 햇빛까지 색칠한 것 같은 전혁림의 손톱 밑은 언제나 물감투성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민족의 혼을 담으려는 화가의 고집이자 열정의 흔적이었다.





Jeon Hyeok Lim



🦋 화가는 고향에서 정감어린 평화를 얻었다

전혁림은 1916년 통영에서 출생했다. 부산미술전(1938년)에 ‘신화적 해변’, ‘월광(月光)’ 등의 작품을 출품하여 입선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가기 시작한 전혁림이지만, 한국 화단이 그를 경이의 눈으로 재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1980년 그의 나이 6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이다. 1979년 ‘계간미술’에서 과소평가 받는 작가로 소개되면서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조명받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전혁림의 예술혼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왕성한 창작욕에 불타올랐던 점이다. 마치 그가 살아낸 한국의 역사적 격동기와 문화적 고통을 한꺼번에 분출하는 듯 했다.



전혁림은 외출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지만, 8.15광복이 되자 거리로 뛰쳐나갔다고 고백한 바 있다. 광복을 맞은 그때 나이가 30세였다. 화가는 자신이 쓴 글에서 자신이 살아냈던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통영이 주는 이미지와 화가 자신의 인생이 오랜 시간 투영된 결과였다. 강렬한 역사적 삶과 고향에서의 따뜻하고 정감어린 평화, 그것이 바로 전혁림의 그림인 것이다.

그는 해방 후 감격과 좌절을 겪고 통영문화협회 창립 동인(1948)에 참여했다. 김상옥, 김춘수, 유치환, 윤이상 등과 함께였다. ‘통영문화협회’는 대중계몽을 위해 결

성된 단체로 문학강연, 미술전시회, 한글강습 등을 열었다. 문화운동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우려는 정신을 품은 단체였다. 특히 김춘수 시인과의 우정은 2004년 김춘수 시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전혁림은 젊은 시절 시를 써서 김춘수 시인에게 보이곤 했다. 시의 언어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림으로 몸을 돌렸지만 문학과 미술의 경계를 허물며 그들은 통영에 예술의 집을 지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 따뜻한 통영의 품에 잠들어있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한때 한국미술계를 등지고 은둔하기도 했지만, 그의 그림을 기다리던 서울의 애호가들이 고향에서 그를 찾아 내기에 이른다. 그의 은둔은 내적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더욱더 그림에 몰두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전혁림은 회화에만 집착하지는 않았다. 전혁림은 추상과 구상, 다양한 오브제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끝없이 자신을 탐구했다. 다른 영역의 작업을 하는 것을 외도처럼 생각하지 않고 현대미술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체험과 조형영역의 자유로운 확대를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한 작가였다.

🦋 통영의 아름다움과 우리 민족의 혼을 세계에 알린 화가

1916년 출생하여 2010년 5월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격동기와 다양한 문화를 살아낸 화가 전혁림... 때로는 전통민화에서 때로는 자연에서, 때로는 고향에서, 때로는 인간에게서 그림의 소재를 찾고, 그 소재는 그림 속의 영혼이 되어 자연스럽게 표현됐다. 전혁림의 그림을 보다보면 그가 생전에 “세상 모든 그림을 내가 다 잡아먹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말 속에는 ‘일제의 수탈’과 ‘한국전쟁’의 경험 등이 함축적으로 스며있기도 한 것이다. 수많은 개인전과 단체전을 거쳐 전혁림의 작품은 청와대, 대법원,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만다라-전혁림

중앙의 화단과 거리를 두고 타협하지도 않으며 고향에서 묵묵히 전통 오방색(청·백·적·황·흑)의 색채에 빠진 전혁림은 통영의 아름다움과 우리 민족의 혼을 세계에 알린 화가로 평가받는다. 생전 화가는 인터뷰에서 통영의 풍광을 어찌 다 그럴까, 하는 생각뿐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통영의 푸른 자유와 생명의 기운은 충분히 노화가의 심장을 떨리게 했으리라. 그렇게 화가는 나날이 자신만의 독자적 예술세계를 이룩해 갔다. 청와대에 걸린 대작 '통영향' (2006년, 길이 2m, 높이 2.7m)은 통영의 아름다움이며 또한 나아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의미하기는 작품이기도 하다. 한국의 예술가로서 세계에 우리의 민족혼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백 년 동안 스쳐온 나날들이 얼마나 사납고도 기이한 경험이었을지, 화가는 작품 '만다라' 를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해냈다. 신성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만다라' 엔 이제까지 꿈꿔온 것들이 모두 들어 있다. 그것은 노화가의 깨달음과 동시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평화로움이 깃든 그림이다.

고향에서 화가는 행복했다. 살아생전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지어졌다. 평화로움 속에서 화가는 마지막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노화가의 손톱 밑엔 물감이 가득 배어 있었다. 심장질환으로 약물치료를 받아가며 생존에 필요한 시간 외에는 물감과 파란된 기름 속에 파묻혀 작품 세계를 탐구했다는 화가의 열정은 남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역사의 귀퉁이처럼 작은 마을을 끼고 앉아 바다와 하늘과 산을 들이마시고 있는 미술관 아트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목을 타고 흘러내려가는 커피 한 잔이 몸속에서 통영바다가 되고 지중해가 되고 알래스카가 되는 꿈을 꾸다. 통영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그림 속의 청색과 적색은 화가의 내면처럼 더 깊어지고 깊어졌을까. 코발트 블루의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흙과 하늘과 공기와 바람에 짙은 물감냄새가 배어있다. 화가는 보이지 않는 공기와 바람과 햇빛까지도 색칠하여 캔버스에 풀어놓았다. 🍃

* 화가 전혁림 선생님의 자료와 사진 일부는 전혁림미술관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그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서영 시인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19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였고,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을 받았다. 시집으로 『붉은 태양이 거미를 뚫다』가 있다.



전혁림 미술관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경남메세나협회의 아름다운 동행이 세 돌을 맞았다. 그동안 기업과 예술단체의 상생의 화합이 만들어 낸 놀라운 성과들을 통해 경남의 메세나활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지만 강한 문화적 결연을 보여준 사례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 21세기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줄 아름다운 동행의 생생한 모습을 지면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음악과 미술, 그리고 나눔이 있는 STX

조선·기계, 해운·무역, 플랜트·건설, 에너지 4개 부문을 축으로 9개의 국내주요계열사를 둔 STX 그룹의 6개 계열사가 경남에 있다. 올 7월에는 지상 21층, 지하 8층, 건축면적 4만3,500㎡ 규모로 창원 중앙동에 STX 종합기술원까지 건립을 했다. 말 그대로 경남의 향토기업인 STX는 지역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행보를 멈 없이 이어가고 있다.



풍경이 있는 공간, STX 종합기술원

“저희가 경남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이 건물도 종합기술원이 아니라면 경남 도민들에게 전 층을 다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기술원이다보니...” STX 엔진의 김영호 관리팀장은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STX 종합기술원의 1층과 2층, 21층 VIP 접견실에는 경남미술협회 소속 작가들 5명의 작품 13점이 전시돼 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와 경남미술협회의 미술작품 대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소박한 풍경화들이 중심이 된 그림 전시는 자칫 딱딱해 보일 수 있는 공간에 한 점 여유를 주고 있다. STX 그룹의 두뇌라는 종합기술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바쁜 업무 중에서도 풍경화에 눈길을 멈추고는 호흡을 가다듬는다고 한다.

대기업은 멀리 있거나 문턱이 높은 편이다. 관계자가 아니라면 방문할 일도 없다. 하지만 시내 한 가운데 있는 건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업이 멋진 그림을 전시해 놓고 지역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면 그야말로 지역민들에게는 주저 없이 들어가 보고 싶은 공간이 된다. STX 종합기술원은 경남미술협회와 교류·협력해서 1층과 2층에 그림을 전시할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지속적으로 많은 그림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신나고 즐거운 STX 사원 음악회

차이코프스키는 조카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백조의 호수>를 작곡했다고 한다. 지난 9월 9일 저녁에 열린 STX와 함께하는 사원음악회는 음악의 본질적 의미가 청중을 즐겁게 해 주고 교감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 준 공연이었다.

이날 공연은 경남대 음악교육과 출신으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서 유학한 뒤 경남팝스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박현수 교수(창원전문대의 “안 보면 크게 후회할 공연”이라는 엠포(?)로 시작됐다. STX 그룹의 경남 사옥인 종합기술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STX 조선해양, 엔진, 중공업, 메탈의 사원 200여 명과 STX 조선해양에서 초대할 진해시장에인복지관 20여 명의 청소년들과 선생님, 보호자들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첫 무대는 아프리카의 넓은 초원을 달리는 수많은 동물들을 표현한 <아프리카 심포니>(Van McCoy)를 경남팝스오케스트라가 장식했다. 경쾌하고 웅장한 느낌을 주는 첫 곡에 연이어 귀에 익숙한 <러브 스토리>가 흘러나오자 듣지 않을 수 없는 공연이 될 것을 예감했다.

미국 템플 음대에서 유학하고 현재 영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박은미의 힘 있는 무대,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4인으로 구성된 남성중창단 ‘어썸’의 공연으로 청중들은 내내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날 공연에서 마징가 Z와 캔디 등 만화의 주제곡을 부른 어썸은 청소년 관객들로부터 열광적인 앵콜 요청을 받았다.

초대할 장애인 청소년의 일일 보호자가 돼 함께 공연을 들었던 STX 조선해양의 하영준(총무팀)씨는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었고 같이 본 석환이도 집중을 해서 들었다”면서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또 사원들과 나란히 앉아 음악회를 즐긴 STX 엔진의 정용학 사장은 “지역사회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향토기업으로서 경남 FC 지원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보급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와! 배가 산보다 커요"

창원 안젤루스 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9월 11일 오전 STX 조선해양으로 나들이를 했다. 큰 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버스를 타고 넓은 조선소를 견학한 꼬맹이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배들을 보고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올 상반기 STX 조선해양과 안젤루스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로 결연을 맺은 바 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주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은 기업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문화예술단체가 사내공연, 직원문화예술교육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하며, 교류협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숲의 울림이

있
•
기
•
에

완벽해진

인산 가곡제

인산죽염촌 제5회 인산 가곡제

제 5회 인산 가곡제는 김해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볼 프 페라리의 오페라 <성모의 보석>(The jewels of the madona) 중 두 번째 간주곡을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숲을 울리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500여 명의 관객들은 일상의 긴장감과 고단함을 서서히 내려놓았다. 부산 출신으로 독일에서 유학하고 독일 하노버 주립극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테너 전병호가 <산노을>(유경환 시, 박판길 곡)을 부르자 관객들은 익숙한 멜로디 속으로 빠져 들어갔고 오래된 나무들도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환영했다.

소프라노 윤지영이 나와 <꽃구름 속에>(박두진 시, 이흥렬 곡)로 관객들을 끌어 올리자 가곡제의 분위기는 달아올랐고 이어서 테너 홍지형이 부르는 <그리워>(이은상 시, 채동성 곡)와 소프라노 고예정의 <비가>(신동춘 시, 김연준 곡)를 들으면서 관객들은 가슴 속의 애잔함을 감추지 않았고 바리톤 박대용이 <쥐>(김광림 시, 변훈 곡)를 부르자 미소로 화답했다.

나란히 앉아서 노래를 감상하던 손혜선(48)씨와 김선재(47)씨는 이구동성으로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다면서 소녀처럼 발그레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한의학자이며 죽염발명가인 고 인산 김일훈 선생(1909~1992)의 체세구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인산죽염촌(주)에서 주최하는 인산 가곡제는 전국적인 규모로 국내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이 초청된다. 이미 베

이스 오현명, 테너 엄정행이 인산 가곡제를 거쳐 갔고 올해는 한양대 음악대 학장과 국립 오페라단 단장을 역임했던 바리톤 박수길이 초청됐다. "상림이라는 멋진 숲에서 음악을 들으면 오감이 열리는 것 같아요.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적은데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인산 죽염촌의 최은아 대표이사의 이야기는 이외로 소박하다.

바리톤 박수길의 공연은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로서 그 명성에 손색이 없었고, 전 출연자들이 함께 부른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Brindisi)를 끝으로 구월의 어느 멋진 날은 막을 내렸다. 함양군 안의면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 김창호(48)씨는 "신 아리랑을 듣다보니 은행원으로 퇴직을 한 뒤 농사를 짓기 위해 고생한 일들이 생각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무대에서 내려 온 박수길 교수는 채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숲 속에 무대를 마련 한 것이며, 적극적인 관중들과 한 마음이 돼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놀랍고 고맙다"고 찬사를 연발했다. 숲 속을 노래와 연주로 가득 채운 한 여름 밤의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삶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낸 듯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총총히 떠나가는데 가곡제의 여운은 여전히 무대를 감싸고 남아 있었다.



지난 9월 8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회사 강당에서 연 양산 화인테크놀리지의 한마음 가족 음악회의 주요 관객은 직원들과 매출처(대리점)에서 일하는 분, 그리고 서영옥 대표이사의 지인들 100여 명이였다.

오후 5시 30분 한술밥을 먹는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됐다가 객석의 관객이 되는 열린 공연이 시작됐다. 첫 무대는 무지까모레 중창단의 <우정의 노래>(Stein song)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김동규 노래, 시크릿 가든 곡)로 웅장하게 시작됐다. 이어서 화인테크놀리지가 자랑하는 남성2중창단 (생산팀 박영호, 이수웅)이 버즈의 <남자를 몰라>를 떨리는 목소리로 열창을 하여 무지까모레 중창단 못지않은 박수를 받았다. 다음 무대는 양산상공회의소 구자웅 부회장이 색소폰으로 <가방을 든 여인>(La Ragazza Con La Valigia)과 <미망인의 블루스>(Tuff)를 연주했다. 비록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관중들은 환호로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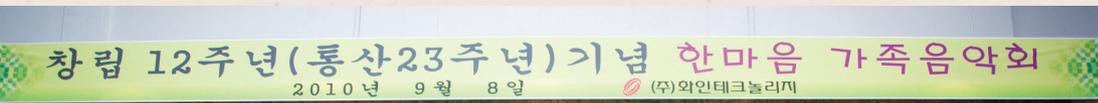
피날레 공연은 클래식 악기를 연주하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많은 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산시민신문에서 지역 출신 어린이들로 구성된 뉴스심포니에타의 <The Ludlows>(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나는 대리석 궁전에 사는 꿈을 꾸었어요>(오페라 The Bohemian Girl의 아리아), <Gabriel's Oboe>(영화 미션 중에서) 등 연주했다. KNN 유랑극단의 박요한 MC의 재미있는 진행으로 한마음 가족 음악제는 그야말로 한마음이 돼 막을 내렸다. 시종일관 웃음 띤 얼굴로 공연을 관람한 씨지텍 대리점의 김찬구(43)씨는 "여러 음악제나 기업의 행사를 다녀봤지만 대체로 경직된 분위기인데 오늘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이라 공연이 색다르고 의미있게 다가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수마저도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가족'음악회, 세상 어느 곳에서 이런 따뜻함과 정겨움을 찾을 수 있을까.

한편 이날 장외 공연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플룻 연주를 선보인 서영옥 대표이사는 "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음악회를 마련했다"면서 "공연할 기회가 적은 지역 예술인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지역과 문화 사랑은 남다르다. 산업융특수테이프 제조업체인 화인테크놀리지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공연의 티켓을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화가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사내에 전시, 직원들의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메세나 활동으로 1년에 1억2천만원, 연 매출액의 1%를 지출한다. 서 대표이사는 2009년 경남메세나상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가족 음악회

명 · 불 · 허 · 전

화인테크놀리지 창립 12주년 음악회



예술은
 지·역·민·에·계
 기업은
 예·술·에·계,

(주)포스텍과 한국미협 진해지회



손 끝에 닿는 흙의 감촉은 부드럽다.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는데 (주)포스텍(대표 최기석)과 한국미술협회 진해지회의 메세나 활동이 바로 이 守柔曰強과도 같다. 지난 7월 통합창원시 기념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한국미술협회 진해지회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도자기찰흙체험놀이'를 진행했다. 찰흙으로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본 시민들은 흙의 부드러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직접 만든 도자기들을 보며 흡족해 했다. 미협 진해지회가 통합 창원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었던 데는 (주)포스텍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행사에 참여한 포스텍 사원들의 열정에 시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2007년 연말 (주)포스텍과 미협 진해지회는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결연을 맺고 교류·협력하는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미협 진해지회는 연간 2회 정기 전시회와 부정기적인 기획전을 열어 지역민들에게 멋진 작품들을 보여 주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마당을 열기도 한다. 기업은 예술에 지원하고 예술은 지역민들을 위한 것이다. 미협 진해지회에서는 (주)포스텍 사내에 전시할 수 있는 그림들을 선사했고 사원들의 가훈을 써 주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다.

미협 진해지회의 김다순 회장은 "얼마전 회원들 20여 명이 올 가을 전시회를 대비한 야외스케치를 나가는데도 포스텍에서 차량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큰 도움을 주셨다"면서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지역민들을 위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 가을 미협 진해지회에서는 포스텍과 함께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미술심리치료교실, 도자기 체험 학습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경우도 전화위복에 해당할 것 같다. 지난해 가을, 지역의 언론들은 경남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도 경비 문제로 전국무용제에 출전을 하기 어렵게 된 김금희 무용단의 안타까운 소식을 다루었다. 이 소식을 접한 밀양의 대형선박엔진부품 전문제조 업체인 (주)화영(대표이사 이홍원)에서 후원을 해서 김금희 무용단은 전국무용제에 출전을 했고 은상을 수상했다. 지역에는 대도시에 비해 무용가들이 적어 지역의 무용단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란 어렵다. 특히 김금희 무용단의 단원은 전원이 밀양 출신이다. 이 일이 계기가 돼 화영과 김금희 무용단은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결연을 맺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도나 시의 행사에 따른 일회성 지원금과 달리 경남메세나협회의 중소기업 매칭펀드 지원금은 지원받는 단체의 재량

권이 크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는 셈이다. 안정적인 후원을 받게 된 김금희 무용단은 올 9월 셋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일요일마다 영남루 누각에서 상설무대를 만들어 공연을 했다. 매년 영남루를 볼 때마다 자신의 무용과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화영의 지원을 받은 김금희 무용단이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여주는 릴레이 후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김금희 단장은 "화영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싶는데 화영에서는 작품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춤 공연을 자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셔서 더 미안하고 감사한다"고 말한다.

영남루

누각에서

아
·
름
·
다
·
운

춤사위 펼친

김금희 무용단

(주)화영 & 김금희 무용단





기업과 예술의 만남
신규결연팀 소개

고구려 / 대표 임채현

↳ **경남국악관현악단 休 / 단장 송철민**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고 이번에 처음 결연을 맺은 고구려는 조선기자재, 발전설비 생산 및 설치공사, 보온단열재 판매 및 시공,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파트너가 된 경남국악관현악단체는 2006년 창단한 이래 다양한 시도로 전통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어오고 있는 실력파 전통음악단체이다.

(주)고려철강 / 대표이사 한철수

↳ **가곡전수관 / 관장 조순자**

특수강 전문유통 기업인 고려철강은 25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인 가곡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곡전수관과 결연함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

상남굿모닝내과병원 / 원장 이창열

↳ **경남영화협회 / 회장 정흥연**

상남굿모닝내과병원은 최고의 시설과 전문의료진으로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실현하고, 환자를 가족같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내과 전문 병원이다. 이번에 행복한 동행의 길에 나선 경남영화협회는 매년 경남독립영화제를 개최하며, 영화제작과 지원 및 교육, 정책개발 등을 통해 경남의 영상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M E C E N A T

**신대양(주) / 대표이사 박종춘**

↳ 예술단 “樂(락)” / 단장 송기혁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 기업인 신대양은 메세나협의회 창립 당시부터 회원사로 참여하며 기업 메세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다가, 전통 타악연희 전문단체인 예술단樂과 결연을 맺음으로써 전통음악의 작품 연구와 교육, 연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신화철강(주) / 대표이사 정현숙

↳ 트루베르첼버오케스트라 / 단장 정우현

↳ 극단미소 / 단장 천영훈

철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철강제 임가공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신화철강은 폭넓은 예술후원을 통해 지역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두 단체와 결연을 맺었다. 오직 연극에 대한 사랑과 도전, 열정으로 경남 연극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잡은 극단 미소와, 경남주요 음악단체 소속 현악전문연주자로 구성된 트루베르첼버 오케스트라가 바로 그들이다.

우수AMS(주) / 회장 전종인

↳ 경남문인협회 / 회장 김복근

우수AMS는 1983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생산 전문기업으로 2003년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최고의 기술로 미래 자동차 부품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우수AMS와 같은 해에 출범하여 현재 약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중인 경남의 대표적인 문인단체인 경남문인협회와 결연을 맺고 경남의 문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정문애드테크 / 대표이사 윤수일

↳ 경남불교미술인협회 / 회장 윤판기

창원 중앙동에 소재한 정문애드테크는 기획, 편집, 브랜드개발, 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전문기업으로, 해마다 정기회원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전을 열어온 경남불교미술인협회와 결연을 맺음으로써 넉넉함을 나누며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한국자연환경(주) / 대표이사 강동규

↳ (사)다별문화 / 대표 전진석

환경개발관련 컨설팅과 GPS 활용을 통한 지장물 조사 및 처리용역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자연환경은, 청소년 관악, 연극, 생활문화교실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함양의 문화예술법인 다별문화와 결연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계획이다.

(주)현대기업 / 대표이사 박영귀

↳ 경남관악합주단 / 단장 김정호

현대기업은 엘리베이터 문과 축판물 주력 생산 업체로 2001년 경남우수기술인상을 수상하는 등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2009년 창단하여 관악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남관악합주단과 이번에 처음 결연을 맺고 본격적으로 기업메세나를 실천하게 되었다.

미술작품대여사업

단 단 함 속 의 부 드 러 운 선 과 면

-STX 종합기술원의 미술 작품 전시

지난 7월 준공한 지상 21층, 지하 8층, 건축면적 4만3,500㎡ 규모의 창원 중앙동 STX 종합기술원 1층 로비에 들어서면 눈길을 멈추게 하는 면이 있다. STX 그룹의 두뇌 '종합기술원'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며 한 점 여유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 강한 시각적 요소를 갖는 STX 메인 로고 조형물과 홍보 영상 화면의 바로 옆 면에 놓인 <가방>과 <신발>과 <여인>이라는 각각의 제목을 단 목재 조각 작품들이 그것이다. 경남미술협회 조소분과 위원장 이명립 조각가의 작품이다. 사람의 시선을 강렬한 면에서 한껏 모아 주었다가 부드러운 자연 소재의 조각품이 놓인 면에서는 지긋이 멈추게 하는 것이다.

2층의 로비 역시 마찬가지다. 회의실 옆의 한쪽 벽면에 전시된 5점의 작품들도 10호에서 20호 크기의 소품으로 수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진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주현 작가의 <진양호의 석양>과 역시 진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혜영 작가의 <향일암>과 <제주도에서>(유화)는 담백함을 느끼게 해 준다. 창원대 출신으로 경남수채화협회 회원인 이경태 작가의 <주남 저수지>는 소박한 맛을 보여준다.

STX 종합기술원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는 공간이 된 연유에 대해 STX 엔진 황해룡 경영관리 본부장은 “경남 지역의 기업으로서 늘 도민들과 교류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그런데 이번에 지은 경남 사옥이 종합기술원이라 전체를 열린 공간으로는 하는 것은 어려워 1층과 2층 로비, 21층 VIP 접견실에만 경남메세나협회의와 경남미술협회를 통해 미술작품을 대여해서 전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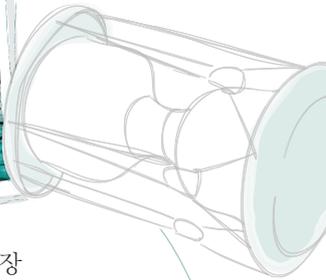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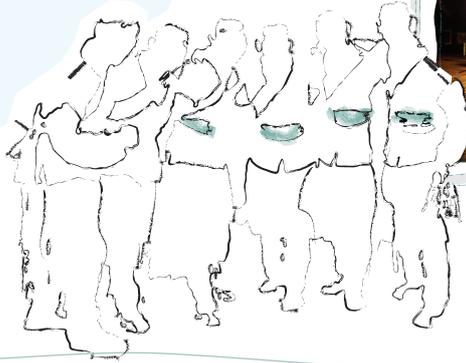
STX 종합 기술원에서 작품을 대여해 전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작품가의 월 1% 대여료에 보험료와 설치부대비용 등 합쳐서 1년에 400만원 가량이다. 국내 유명 작가의 소품 한 점에도 미치지 않는 액수이다. STX 종합기술원에 전시된 작품을 선정한 경남미술협회의 이선업 기획위원장은 “현재 STX 종합기술원에 전시된 5명 작가의 13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작가의 여러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갤러리로 만드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 이다”고 덧붙였다. STX 종합기술원의 1층과 2층 로비는 경남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향토기업인 STX 그룹과 경남미술협회와 경남메세나협회의의 절묘한 기획으로 점이 선으로 또 면으로 확장되는 공간이 된 것이다.



예술동아리지원사업

신 명 을 찾 는 사 람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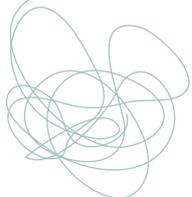
-한국항공우주산업 풍물 동아리 '민예'



몰아치는 장단과 숨죽이는 장단, 장단과 장단 사이의 끊어질 것만 같은 멈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장단... 어느새 관객들은 장구 소리에 맞춰 호흡한다. 지난 10월 9일 창원시 진해구 진해루에서 펼쳐진 국악 공연 중 한국항공우주산업 사내 동아리 '민예'가 선보인 삼도설장구 공연은 관객들의 귀를 흔들어 놓았다. 삼도설장구는 각 지역 설장구가락을 정교하게 접목시켜서 무대 위에 앉은반의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김덕수 등의 국악인에 의해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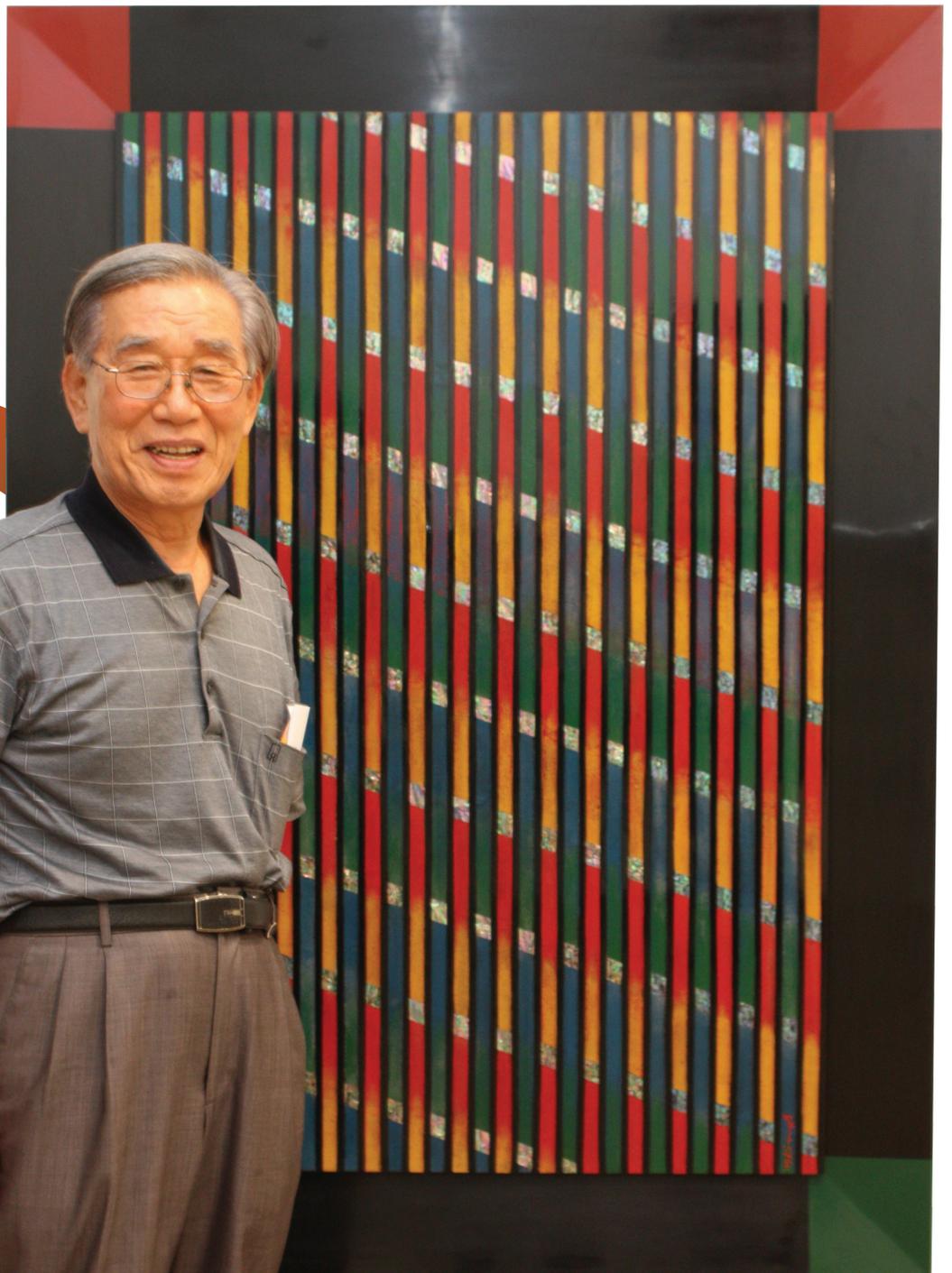
직장인들의 풍물 동아리이라고 하지만 1994년 창립된 '민예'는 사물놀이 작품 2편, 비나리, 판굿, 난타 등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작품이 6여 편이나 된다. 27명의 동아리 회원이 처음에 풍물을 배우게 된 경위야 제 각각의 사연이 있지만 이기범 회장은 "신명을 찾고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고 무엇보다 국악을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는데 동감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모임을 갖고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연 준비를 할 때는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할 정도이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풍물을 배워서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몸에 붙은 '신명'이다. 일을 할 때도 혼신을 힘을 다해 신명나게 하게 된다.

하지만 스스로 좋아서 하는 동아리 활동이라 회사의 지원에 연연해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경우가 가끔 있다. 이번처럼 시민들 앞에 선 보이는 공연이라 각별히 신경을 써 연습을 하고 직장이 있는 사천에서부터 진해로 원정을 가게 되면 경비가 꽤 드는 것이다. 좁은 연습실도 아쉬움이 있다. 경남 메세나협의회에서 직장인 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술동아리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새삼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기범 회장은 "어려움들은 서서히 해결 나가면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



전통과 현대, 실용과 순수,
입체와 평면의 경계 허물어
옷칠화를 창조하다.

—통영옷칠미술관 김성수 관장





통영군 용남면 화삼리 언덕 위에 500㎡크기의 하얀 색 단층 건물이 조용히 앉아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옷칠미술관이자 경남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통영옷칠미술관이다. 주변의 나무와 풀, 언덕 아래의 작은 마을과 섬들과 바다 사이에서 조화롭게 자리를 잡은 것이 미술관으로서 품위가 묻어난다. 아담한 걸모양의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면 예상 밖의 장면과 맞닥뜨리게 된다. 입구 정면에 웅장하고 화려한 두 겹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봉황이 날고 있는 것이다. 가로 398cm, 세로 296cm, 두께 10cm의 ‘칠예의 문’이라는 작품이다. 문 앞에서 압도당한 관람객을 김성수 관장께서 칠예의 세계로 안내한다. 잔잔한 웃음을 머금고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김성수 관장은 옷칠화의 대가로 숙명여대 미대교수로 재직하던 뒤 2006년 사비를 털어 옷칠 미술관을 건립했다.

— 옷칠회화라는 독보적인 장르를 창조하다.

“‘칠하다’의 ‘칠’은 한자인데 사전에 보면 첫 번째가 옷칠, 두 번째가 도료로 쓰는 물질 또는 그것을 바르는 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과거에는 ‘옷칠’이 유일무이한 ‘칠’이었다는 것이다. 옷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칠액을 나뭇잎이나 벌레같은 이물질을 없앤 뒤 천연안료를 섞어 청동기나 철기, 목재에 칠을 하면 방부, 방수, 방균 효과가 그만이었다는 것. 옷칠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전돼 한국은 나전칠기, 중국은 조칠, 일본은 마키에 같은 대표적인 표현기법을 갖게 됐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실은 미술관 취재를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던 의문이다. 대개 옷칠이라고 하면 나전칠기를 떠올리고, 옷칠은 공예품에 실용적인 목적과 심미적인 가치를 지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술관을 옷칠공예미술관으로 명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의 미술계가 회화 중심입니다. ‘옷칠로 회화를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다 ‘옷칠을 공예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해방을 시켜 주어 모든 장르로 퍼져나가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가리개에 전통적인 채화칠기와 나전칠기의 표현 기법을 쓴 ‘옹비’다. 이 작품은 1988년 제 24회 서울올림픽기념 한국현대미술 초대전에 출품돼 옷칠회화의 효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카소가 전통적인 원근법을 파괴하고 2차원의 평면에 입체의 공간을 창조한 것처럼, 김성수 관장은 입체의 영역에 있던 옷칠을 평면의 공간으로 당당히 끌어내 옷칠회화라는 독보적인 장르를 창조한 것이다. 김성수 관장이 창시한 옷칠화는 현재 한국 화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30여 명의 작가들로 구성된 옷칠회화와 통영 미협 소속의 현역 옷칠 작가들에 의해 왕성하게 창작되고 있다. 통영옷칠미술관 3개의 전시실에 전시된 100여 명 작가들, 300여점 옷칠 작품들을 보면 옷칠로 회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이다. 옷칠은 기존의 회화 작업에 비해 표현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덧칠기법에 따라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다.

창조적인 파괴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김성수 관장은 어떻게 헤쳐 나갔을까? “단계적으로 풀어 나갔습니다. 제가 1973년경 1년 6개월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니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했지요...” 옷칠미술관 제 1 전시실에는 김성수 관장이 처음으로 국전(제12회, 1963)에 출품해서 공예부문 최고상인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한 ‘음양’이라는 제목의 문갑이 전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공예 작품이었다고 한다. 그 때만 해도 문갑은 ‘쌍’을 이루어야 했다. 그런데 좌우대칭으로 대비를 시킨 음양 ‘하나’로 문양을 넣은 것이다. 1963년 이미 모던한 문갑을 만들었던 김성수 관장이 1988년 만든 ‘옹비’에서는 옷칠을 공예에서 해방시키는 한편 옷칠로 전통적인 화려함을 살려냈다. 김성수 관장의 작품 세계에서는 정·반·합의 변증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옷칠회화라는 장르를 창조한 김성수 관장은 1998년 숙명여대 미대를 퇴직한 뒤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옷칠에 대한 세계인들의 선호도가 궁금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시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옷칠 작품들이 엄청나게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옷칠을 영어로 Asian lacquer로 표기를 해요. 일본 옷칠은 옷나무의 성분인 Urushi로 표기를 해서 다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세계인들은 옷칠하면 일본을 떠올리는 정도이다. 이때부터 김성수 관장은 ‘칠’과 ‘옷칠’의 혼용으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옷’의 영문표기를 ‘Ott’으로 정하고 옷칠화도 Ott-painting으로 표기하는 등 옷칠화 정립을 위해 힘을 쏟았다. 한편 6천여 년 전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옷칠이 정작 중국에선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맥이 끊겼다. 경제개혁 이후 중국은 옷칠을 국가적 차원에서 명맥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작업의 한 가운데 김성수 관장이 서 있다. 김성수 관장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청화대학교 미술대학의 객좌교수를 맡고 있다.



— 인사동 옷칠 명품관이 세계적인 명품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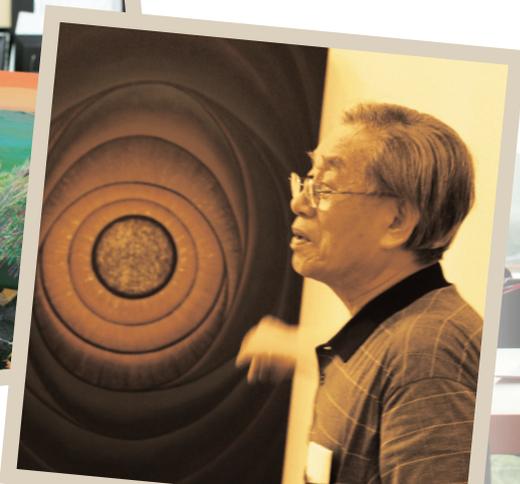
2002년과 2003년 한국인 미국인민 100주년 기념 <김성수 옷칠화>전을 로스엔젤로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 순회전을 마치고 2004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옷칠로 표현한 회화'라는 주제의 개인전을 가진 뒤 김성수 관장은 자신이 태어난 미늘마을이 보이는 화삼리 언덕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니다. 70년대는 세 집 가운데 한 집에서 나전칠기를 만들 정도로 흥했지만 지금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나전칠기의 본 고장 통영에서조차도 외면 받는 옷칠을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부흥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 옷칠미술관을 세우게 됐습니다...서울의 집 팔고 연금을 탈탈 털었습니다”

김성수 관장은 기라성 같은 예술가들의 품에서 성장했다. 6·25 전쟁이 난 이듬 해 부산으로 피난을 와 있던 유강렬 선생이-뒤틀날 판화가, 염색공예가로 이름을 떨치며 홍익대 미대 교수로 이름을 떨친다-도립으로 경남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를 설립을 하게 한 것이다.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어린 김성수는 먼 친척 아저씨의 소개로 양성소에서 수학을 하게 되는데 이 양성소에는 설립을 주도했던 유강렬 선생은 물론이고 나전기법 무형문화재 김봉룡 선생, 옷칠기법 무형문화재 안용호 선생이 전임 강사로, 이중섭, 김용주, 김종식 등이 특강을 맡았다. 훌륭한 스승 밑에 뛰어난 제자가 된 김성수 관장은 국전 당선 작가, 미대 교수, 옷칠화 창시자를 거쳐 이제는 고향의 품에 안겨 그 옛날 자신이 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요즘 제가 가장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건 옷칠화가 양성입니다. 지금 우리 미술관 작업실에서 통영 미협 소속의 화가 여섯 분이 옷칠화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옷칠화를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일이고 참 행복한 작업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꾸준히 후원해주는 경남자동차판매 이인호 사장에 대한 고마움도 크지요.”

올 7월 서울 인사동 공평갤러리에 옷칠 명품관을 연 것도 후배 작가들을 위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성수 관장의 가구 작품과 그림, 여러 옷칠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 컵과 같은 생활용품까지 전시가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감상하고, 김 관장의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잘 팔려서 옷칠화가들이 대거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소탈하게 말씀하시는 김성수 관장이시지만 **인사동에 들어선 옷칠 명품관은 옷칠이 경남 통영이라는 지역에서 전국으로 또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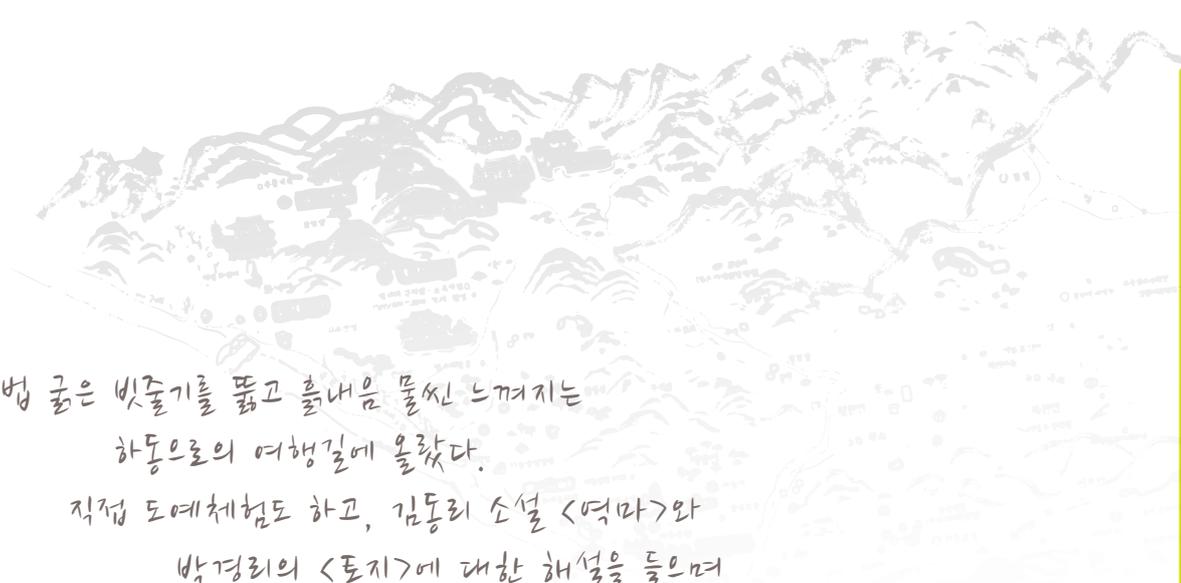


섬진강을 따_라_가_는_

하동예술기행

글 / (사) 경남오페라단 기획팀 전나은





계법 굴은 빗줄기를 뚫고 흘러온 물소리 느껴지는
 하동으로의 여행길에 올랐다.
 직접 도예체험도 하고, 김동리 소설 <역마>와
 박경리의 <토지>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화개장터와 평사리 일대를 둘러보는 문화체험,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달빛 시낭송회까지...
 자연속의 평온함을 느끼고 싶었던 이맘때에
 경남메세나의 문화예술기행은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듯 반가운 소식이었다.

— 진교백련도요지 '하동요'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다.

하동에서의 첫 목적지인 진교면 백련리에 들어서자 드넓게 펼쳐진 연밭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9월이라 연꽃은 별로 없었지만 수백, 수천 개의 푸른 연잎들을 보니 아침 일찍 분주했던 탓에 남아있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거기에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는 운치를 한껏 더해주었다.

유난히 하얀 연꽃이 많아 백련리 도요지라 불리는 '하동요'에서 도예가 정웅기선생과 함께 직접 도예체험을 하였다. 도자기를 빚기 전 정웅기 선생의 물레시연과 더불어 백련리 도요지의 역사도 들려주셨다. 선생은 “자연에 순응해 솔직하면서도 의도적이지 않은 아름다움이 눈에 띄는 찻사발은 조선시대 서민의 삶과 일생을 같이 한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것을 빚어내기까지는 오랜 내공을 쌓아야하고, 물레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겨우 얻을 수 있습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빚어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번에 알 수 있었다. 물레와 흙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과 애정을 쏟지 않으면 금세 모양이 뒤틀어지고 망가져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아무리 평범하고 작은 그릇이라도 그것을 빚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평소에 이렇게 흙을 빚어볼 기회가 없는데, 하동에 와서 이런 신기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신나고 즐거워요.” 경남오페라단 정인숙 국장의 딸 지원이의 말처럼 직접 물레를 돌리며 흙을 만지고 있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은 시간이었다.

— 김동리의 소설 <역마>의 배경인 화개장터

화개장터로 이동하는 길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 시골벽적인 시장의 모습은 볼 수 없어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화개장터하면 제일 먼저 조영남의 '화개장터' 노래가 생각이 난다. 하동의 화개장터는 그 노래 덕에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터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실제로도 광복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5일장이었다고 한다. 또한 화개장터는 김동리의 소설 <역마>의 무대이기도 한데, <역마>는 <백민(白民)>(1948)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역마살 또는 당사주(唐四柱)로 표상되는 한국인의 운명관을 그려 당시의 장터 풍경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 당시엔 장터가 역마살이 낀 장돌뱅이들의 집결지로 표상되었기에, 작가는 화개장터를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으로 선택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화개장터는 예전과 같은 재래시장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초가집 상점이 들어서 질서정연한 풍경을 선사해주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장터가 조용해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옆에 보이는 삼진강 줄기와 오는 길에 보았던 녹색의 푸른 차밭들을 본 것만으로도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 좋았어요.”라며 포스코특수강(주) 박소현 과장이 소감을 전했다.

— 광활하고 풍요로운 악양 평사리들판 앞에 절로 고개를 숙이다

1300년 전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치러 왔다가 산 한가운데 호수가 있는 풍경이 중국 호남성의 악양과 흡사하다하여 '악양'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곳.

소설가 박경리는 지리산을 뒤로하고 앞으로 삼진강이 흐르는 지리적 특이함을 지닌 이 악양벌을 지나다 그 넓이와 풍요로움에 반하여 소설 <토지>를 구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푸른 벼들이 익어가는 들판이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있던 평사리들판은 가히 장관이었으며, 이번 문화예술기행의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 만큼 경이로운 모습이었다.

들판 한가운데 외로운 듯 다정히 서 있는 두 그루의 소나무. '부부 소나무'라 불리는 이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보존될 수 있었던 건, 소나무들이 심어져있던 곳이 묘지여서 그곳을 지키려는 효심으로 지금껏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는 곳이 예전에는 삼진강 줄기에 떠있던 섬이었는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들판으로 변해온 것이라고 한다. 그랬던 그 섬은 모두 간척되어 지금은 80만평에 이르는 푸른 들녘을 이루고 있었다. 들판을 따라 걷는 내내 자연의 광활함에 눈을 떼지 못했고, 엄청난 양의 곡식을 일구는 농부들의 인내와 정성에 감사함과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들어 고개가 아래로 향하기도 하였다.



— 최 참판 댁 안채에서의 달빛 시낭송회 —

그렇게 30분정도를 걷고 도착한 곳은 박경리 소설 <토지>의 배경으로 널리 알려진 최 참판 댁이었다. 흔히들 소설 속 인물과 장소가 실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소설 <토지>는 이곳 하동 악양 평사리를 둘러본 박경리 선생의 상상력으로 창조된 허구이다. 지금의 최 참판 댁은 소설 속 가상공간을 평사리라는 지리적, 공간적 위치로 옮겨놓은 곳으로, 드라마 <토지>도 이곳에서 촬영을 하였다.

최 참판 댁까지는 약간의 비탈진 길을 올라가야했는데, 뒤로 돌아서면 드넓게 펼쳐진 평사리들판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들판을 벗 삼아 동등한 눈높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도 놀라웠지만,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을 때의 풍요로움과 녹색의 향연의 조화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대단한 광경이었다. 거기다 서서히 지는 노을의 붉은빛이 더해지니 '자연의 경이로움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 줄 미처 몰랐네요. 이곳에서의 4계절을 모두 눈으로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하동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주동오프랜지 김혜정 과장의 말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

최 참판 댁 사랑채에서 평사리문학과 최영욱관장으로부터 소설 <토지>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이동한 최 참판 댁 안채. 문학관에서 정성껏 차려주신 주안상을 마주하는 호사를 누리며 시낭송과 작은 음악회를 겸한 '평사리 문학의 밤'을 체험하였다. 어느새 어두워진 초가을 밤은 은한 달빛 조명 아래 시와 음악을 듣고 있으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흥이 일었다.

경남메세나 회원사 가족들도 시 낭송에 참여하였는데, 수줍지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시를 읊은 여덟살 지현양, 그 옆에서 딸 못지않게 감성적인 목소리로 유치환 시인의 '행복'을 낭송한 the큰병원 홍광숙 실장, '심(心)부름'이라는 자작시를 선보여 많은 이들의 공감과 탄성을 자아냈던 (주)포스텍 허귀영 부장의 남편 배형동씨, 재주 많은 가족들 덕분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마음이 풍요로워졌다.



—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느끼게 해주었던 소중한 시간

흙을 빚어 도자를 만들며 자연 앞에 겸손해지던 시간.

비오는 땅을 맨발로 걸으며 땅과 하나 되는 자유를 만끽했던 시간.

초록의 들판과 붉은 노을이 지는 평사리에서 마음의 여유와 풍요를 느끼게 해주었던 소중한 시간과 멋진 추억을 선물해준 하동의 존재감이 어느 샌가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최영욱관장님이 선물해주신 그윽한 황차만큼이나 진한 여운을 남기고 문학과 음악이 함께했던 하동에서의 멋진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갔다. 🍃



“물업은 물레방아는
 돌지 못하고
 돌지 않는 파수는
 설수가 없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공을 이루고도 그것에 머물지 않는다(功成而不居)고 말한다. 공을 지나치게 드러내 것은 보기 흉 하지만 세상에 알려져 귀감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창원대학교에 10여차례 4억여원을 기부한 현대단조의 마평수 대표이사가 올 상반기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면서 메세나 활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마평수 대표이사를 어렵사리 인터뷰했다.

반갑습니다. 우선 현대단조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현대단조는 1995년 2월 15일 창립됐습니다. 풍력산업, 석유화학산업, 산업플랜트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등 자유열간 단조부품 산업뿐 아니라 경남에서는 전 산업으로 사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업체이며, 2008년에는 호주의 맥쿼리사로 약 40% 지분으로 300억원을 투자받은 수출주도형 기업입니다.

올해 현대단조는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결연을 맺고 지원을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2006년 창원토월고 운영위원장 시절에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견학하게 됐습니다. 그날 학교 구석구석의 견학은 물론, 학교 전반적인 System설명에 이어 유독 한 선생님이 강렬한 인상으로 와 닿았습니다. 현재 경남교원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계시는 박종화 선생님 이십니다. 선생님에게서 음악 전반에 대한 다재다능함 뿐만 아니라 인간적 내면의 세계에 이르는 훌륭한 모습을 봤습니다. 저와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다 2008년 김해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경남의 초·중·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비전공자 위주로 하는 80여 명 가량의 선생님께서 들려주는 연주가 그 어떤 권위있는 연주회보다 저에게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모임으로 오래전부터 만남을 가져오던 김성기 전교육장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경남교원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후원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어떤 교류와 협력을 할 계획입니까.

이미 두차례 연주회가 실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연주회에 저희 회사 희망사원들에 한해서 연주회 때마다 가족을 포함하여 초청되어 음악감상을 하게 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김해에서 연주회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므로 이때에도 가족동반 초청하여 음악 감상을 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교원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전용 연습실이 없는 관계로 지휘자께서 고민하고 있기에 저희 현대단조 4층 건물중 1개 층을 연습실로 사용하라고 권하였으나 경남 각지에서 모이는 선생님들께서 함안은 다소 먼 지역이라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대산미술관을 오랫동안 지원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대산미술관과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요.

1996년부터 저희 회사가 창원시 대산면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1999

년 출근길 어느날 국도25호선 도로변의 대산미술관 안내표지판을 발견하고 찾아간 인연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산미술관 역시 설립취지를 보면 순수한 작가와 미술학도들, 그리고 삶의 여유를 찾고 싶은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를 생각하면서 창원지역을 비롯한 낙후된 지방문화와 소외된 농촌지역의 문화공간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했다는 김철수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소중한 만남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대산미술관에서 치루어낸 55여회의 전시회 행사 중 30여회 행사는 같이 동참하여 왔습니다.

사내에 소장작품 갤러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갤러리라는 것도 작품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구입 했다던지 지인들로부터 선물 받은 것들인데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것을 한곳으로 모아 놓은 정도입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감상도 하고 수석에는 물도 뿌리고 하니 한결 무겁던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산에 올라 시를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내에 자작시를 전시하신다고요?

그것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고 그 편안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시어' 로서 메모하고 기억해 두었다가 적당한 시간에 시로서 만들어 질 뿐입니다. 회사내 두편의 시를 액자에 담아 걸어두고 있을 뿐이며 이 두편의 시는 경영에 있어서 매일같이 되새겨야 할 내용들이라 사무실 입구벽에 걸어두고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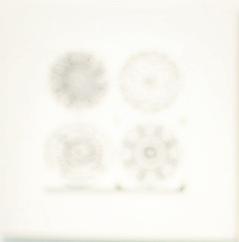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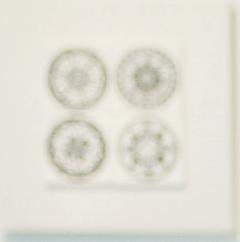
문화예술이 삶을 향기롭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문화예술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삶을 향기롭게 하면서도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요. 문화예술을 같이하는 시간 뒤에는 기쁨과 함께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남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오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살아 숨쉬고 행동했던 순간 순간이 더욱 더 진한 감동으로 연결되어지게 되고 그러한 시간의 연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이 한차원 UP-Grade 되는 것처럼 “물없는 물레방아는 돌지 못하고 돌지 않는 팽이는 설 수가 없다.”라는 말로 대신하여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

숲 갤러리로 오세요.
-더 큰 병원 백경희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명서동에 있는 the 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척추·디스크를 주요하게 진료하는 우리 병원은 지난해 12월, 연면적 7798.19㎡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8층 신축건물에 개원을 했어요. 우리 병원에는 네 분의 원장 선생님이 계신데요. 보건·의료 전반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질병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보다 살기 조금 더 낫다면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어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병원도 기여를 하기 위해 경남메세나협의회에 가입을 하고는 올 봄 창원에서 열린 아시아미술제에 후원을 했답니다. 신호동 원장님은 아시아 미술제 고문으로도 활약을 하셨어요. 직원인 저야 그저 뿌듯했지요.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생각도 했고요. 이 미술제가 우리 병원과 인연이 돼 지난 5월에는 병원 8층에 갤러리까지 만들게 됐어요.

실은 우리 병원의 임직원들이 8층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꽤 했어요. 직원의 복지를 고려하면서도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배려가 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갖춰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갤러리로 답이 모아졌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림을 갖고 있을 리 만무하잖습니까? 한꺼번에 많은 그림을 사 들일 수도 없잖아요? 경남메세나협의회와 창원미협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소속 작가들의 전시회를 계속 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전시회를 다섯 번 열었어요. 갤러리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자들이세요.

저희 병원에는 버트 트랙-허리에 견인기를 차고 보행하는 요법, 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버트 트랙을 하면 20~30분 정도를 서 있거나 걸어야 해요. 빈 벽을 바라보며 서 있거나 걸어 다니는 것 보다 8층에 갤러리에서 그림 감상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한 번은 갤러리에서 조형물을 가만히 보시던 보호자 분께서 “저 작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네요”하시는 겁니다. 일순간 그 조형물에 감정이입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분이 무력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정이입의 끝에는 카타르시스가 다가옵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제가 너무 아는 척을 했나요? 실은 저도 우리 병원 덕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랍니다. 그림을 자주 보다보니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문예이론가인 발터 벤야민 가라사대, 보고 나면 하고 싶어진답니다.

그렇지만 주저 했는데 전시회 덕분에 자주 만나게 된 화가들로부터 격려와 용기를 얻어 시작하게 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그림 그리는 시간은 나 자신조차 잊게 해 주는 시간인데요. 그 몰입의 경험이 업무를 할 때도 나타나요. 원장님들이 들으시면 흐뭇하시겠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병원에도 빈 벽에 그림이 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병원은 8층 공간을 숲 갤러리라고 이름을 짓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시된 그림이 바뀐다는 것, 꾸준히 활동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지요. 이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림도 열 점 안팎이지만 팔렸어요. 이걸 전시회를 연 작가들에게 꽤 도움이 되겠지요.

병원의 직원들도 이 갤러리에 관심이 많아요. 바쁘기로 소문 난 간호사 분들도 새로이 전시회가 열리면 ‘이번에는 어떤 그림이지’하면서 꼭 들러서 보고 가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생존만으로 충분치 않은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인 것 같습니다. the 큰병원의 숲 갤러리에서 한 번 느껴보세요. 🌿





알리알리 양탄자 타고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

지난 10월 2일 창원 3.15 아트센터 대극장 앞으로 마산 창원 지역에 있는 8개의 아동센터 어린이들 150여 명이 등장했다. 한 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곱 살에서 열두 살 먹은 어린이들이다.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은 티켓을 받아 들고서는 아이들을 줄 세워 극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제 자리에 앉히기 위해 분주하다. “선생님~~ 태환이 옆에 앉기 싫어요!!”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웃음을 띤 채 그러나 단호하게 자리 정리를 해 준다.

합성지역아동센터 이미옥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나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최대한 영화, 연극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면서 “오늘은 뮤지컬 공연이라 더 특별하다”고 한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의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기초 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면 더 그렇다. 이런 점에서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은 어린이



들이 우수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경남메세나협회의회는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을 해마다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창원지역의 아동센터 150여 명의 아이들이 그 수혜자가 된 것. 지난해 2009년에는 거제 지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200여 명이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였고, 창원성산아트홀에서 창원 어린이전문국악단의 신나는 우리 국악 공연에 도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120여 명이 초청됐다.

막이 오르면서 음악이 흐르고 춤추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꼬맹이들은 언제 난리법석을 피웠냐는 듯 조용해졌다. 공부보다는 칼싸움놀이를 좋아하는 알라딘이 나오자 아이들은 동질감을 느끼는 듯 킁킁거리면서 뮤지컬로 빠져 들어 갔다. 3막7장으로 이뤄진 뮤지컬 <알라딘>은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천일야화 중 '알라딘과 요술램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됐다. 작품은 재미있는 스토리와 탄탄한 구성과 함께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가세해 묘미를 더한다.



뮤지컬 삼매경에 빠졌던 어린이들의 소감은 어떨까? 꿈쟁이 지역아동센터의 장난꾸러기 유장원(10)은 "신나고 재미있어요" 하면서 알라딘처럼 동굴을 찾아 떠날 표정이다. 클래식 음악회라도 온 것처럼 의젓한 태도로 관람을 했던 가우스 지역아동센터의 이선정(11)은 "학교에서 뮤지컬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때보다 오늘 본 알라딘이 더 재미있었다"면서 평가까지 곁들인다.

화창한 가을날이지만 집에 있었다면 텔레비전이나 게임에 빠졌을 아이들, 오늘은 동무들과 선생님 손을 잡고 나들이를 나와 신나는 뮤지컬 <알라딘>을 보았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관객의 목소리를 소중히 예술경영 아카데미_찾아가는 실무교육



아주 오래된 시절, 예술과 삶은 하나였다. 모두가 노래를 부르고 춤꾼이었고 시를 썼다. 예술이 삶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일하지 않는 '베짱이'들에게는 천형이 주어졌다. 예술을 하면서 먹고 사는 문 제 말이다.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인 아닌, 수도권도 아니고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건 '아사'를 각오한 행위나 다름없다. 하지만 시대의 운명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것이 또 예술가들의 운명 아닌가! 올 8월 도내 문화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7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경남메세나협 의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예술경영 아카데미_찾아가는 실무교육'에 참석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된 교육에서 첫 강의를 한 예술의 전당 손미정 과장은 △재원 조성의 필요성 △ 공연과 기업의 만남 △공연 예술의 혁신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또 유니버설 발레단의 임소영 기획 홍보팀장은 "관객 지향적인 문화 마케팅"을 강조하면서 발레 공연에 대해 설명하는 자막을 넣어 성공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밀양연극촌 최영 사무국장이 축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역 관객 개발 사례, 가곡전수 관 신용호 팀장이 가곡이라는 독특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 관객 개발 사례, 큰들문화센터의 서지은 사무처장이 지역민의 참여를 통한 풀뿌리 생활예술 사례, 대산미술관 허지현 학예사가 소외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향토미술관으로서 관객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둘째 날에는 노무법인 유앤의 김성중 노무사가 근로계약과 4대보험 등 문화예술단체들에게 부족한 인사관리, 한미 회계법인의 김성규 회계사가 세무회계의 기초 및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등 회계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아카데미를 수료한 가곡전수관 조유정 간사는 "인터넷으로 정보는 구하는 데 제한이 많았는데 직접 타 단체의 성공적인 마케팅과 홍보 사례들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고, 이날 배운 사례들을 응용 하여 앞으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장 아래 졸장은 없다

기업체 관리자들의 '문화마케팅에 대한 이해'



문화경영으로 성공한 CEO들은 공통적으로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나 상사가 힘이 넘치면 아랫사람은 일이 많아지고 숨이 막히기 마련이다. 기업이 문화 경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CEO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도 역시 문화 경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7월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는 도내 기업에 몸담고 있는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경영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이병권 사무처장은 '문화마케팅의 이해' 주제 강연에서 "메세나가 기업의 자선적인 문화후원에서 점차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면서 기업과 문화예술이 협력해 나가는 추세이고, 이러한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십이야말로 기업의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면서 문화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기업 가치를 강화하는 핵심요소"라면서 "문화마케팅은 문화예술 발전 등 사회공헌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이는 곧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기업성가로 나타나게 한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뒤 경남메세나협회의 사업 현황 보고와 참석자들의 문화경영 실천에 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주)화영의 손성민 차장은 "예술단체와의 교류활동이 실제 사업운영에 유용한 도움이 되었으며, 다른 회원사들도 메세나를 잘 활용해보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고, (주)신텍의 이연우 과장은 "회원사에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회 사업내용을 잘 안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PK밸프(주)의 최낙진 부장은 "메세나 실무자들이 종종 자리를 함께 하여 문화경영이나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함께 자리를 옮긴 2차 회식 자리에서도 이야기 꽃을 피웠다. 세미나에 앞서 올해 신화철강(주)과 결연을 맺은 트루베르첼버 오케스트라가 <사랑의 인사>(엘가)등 감미로운 현악 4중주 연주를 들려 주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해 주었다. 🐦





나쁜남자 만토바, 그를 용서할수 없다...

이기적 부성애가 빚어낸 처참한 비극

베르디 오페라<리골레토>

글 / 정인숙 (사단법인 경남오페라단 사무국장)

이 여자나 저 여자나 모든 여자들은 다 좋아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 우리 귀에 익숙한 이 테너 아리아는 오페라 <리골레토>의 가장 유명한 곡이자 오페라 사상 최대 히트곡이다. 국내 모 가전제품 마트 광고에 개사되어 오페라 제목은 몰라도 이 아리아는 많은 이들이 흥얼거릴 정도로 유명해졌다. <라트라비아타>, <일트로바토레>와 더불어 베르디 3대 오페라 중에 하나인 <리골레토>는 1851년 베네치아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한 이래 지금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곱추라는 신체적 장애와 부모형제도 없이 아내도 일찍 잃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천한 신분의 광대인 리골레토는 귀족들의 부인이나 딸을 만토바공작에게 짓밟히게 함으로써 자신을 무시하는 귀족들에게 복수하며 살아가는 뒤틀린 심성을 가진 악한이다.

애비의 고통을 비웃는 네놈, 저주 받으리라

오페라 <리골레토>의 막이 오르면 만토바공작의 저택에서 호화로운 파티가 한창이다. 만토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에 띄는 미녀 체프라노백작부인에게 수작을 걸고 리골레토는 한술 더 떠 오늘밤 체프라노백작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백작부인을 꼬셔보라고 말해 체프라노백작을 분노케 한다.

이때 공작에게 자신의 딸을 농락당한 몬테로네백작이 나타나 소란을 피우자 리골레토는 딸 단속 잘못된 못난 애비라고 조롱하며 백작에게 모욕을 준다. 병사에게 끌려 나가던 백작은 “애비의 고통을 비웃는 네놈, 저주 받아라! 언젠가 너도 농락당한 이 애비의 원한을 알게 될 것이다!”라며 리골레토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공작의 신임을 등에 업고 귀족들에게 참기 어려운 독살을 퍼붓고 상처 주던 악한 리골레토도 애비의 원한이라는 말에 움찔한다.

내 딸만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묻지 않게

모두에게 미움 받는 비뚤어진 영혼 리골레토에게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예쁜 딸 질다이다. 리골레토는 질다를 교회에 가는 것 외에는 일체의 바깥출입을 못하게 하며 곱게 키우고자 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어느새 훌쩍 성장해 이성에 눈을 뜬 질다는 낮이나 밤이나 교회에서 만난 어느 청년 생각뿐이고, 몰래 그녀의 집에 숨어 들어와 사랑고백을 해대는 그 청년에게 그만 흠뻑 빠지고 만다. 아버지 리골레토가 알면 기절 하실 일. 그것도 그 청년이 바로 호색한 만토바공작이러니...

“깨끗한 꽃, 나의 딸. 다른 꽃은 꺾여도 내 딸만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묻지 않고 보호해주오” 딸 가진 다른 애비들 가슴에 그렇게 비수를 꽂고 상처 주던 리골레토가 자신의 딸만은 절대, 절대 안 된다는 이 이기적인 부성애로 인해 결국은 그 비수가 자신의 가슴팍에 와 꽂히게 될 것을 리골레토는 상상이나 했을까?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응징하리라

만토바를 용서해달라는 질다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리골레토는 그의 살인을 청부한다.





살인청부업자 스파라푸칠레는 리골레토에게 돈을 받고 만토바공작을 자신의 여관으로 유인하고 리골레토는 아직도 만토바를 못 잊는 질다의 마음 정리를 위해 이 광경을 밖에서 보게 하는데 자신에게 했던 작업멘트를 그대로 쏟아내는 만토바의 모습에 비로소 자신이 배반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큰 슬픔에 빠진다. 리골레토는 질다를 베로나로 떠나보내며 만토바를 반드시 죽여 딸의 원수를 갚겠노라 다짐한다. 잠든 만토바를 죽이려는 스파라푸칠레, 그러나 그새 만토바의 작업에 걸려들어 정신 못 차리는 막달레나는 만토바를 살려달라고 통사정한다. 결국 두 사람은 자정이 되기 전 여관에 오는 사람을 대신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만토바에게 미련을 못 버리고 여관으로 되돌아온 질다가 이 모든 얘기를 문밖에서 듣게 된다. 아버지 리골레토가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인 질다는 이런 아버지에게 “부디 용서해주세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자신을 배반한 바람둥이 남자를 위해 주저 없이 목숨을 내놓고 만다.

인생은 그렇게 되돌아 오는 부메랑

스파라푸칠레에게 시체자루를 넘겨받고 반분이 풀린 리골레토는 강가로 나가던 중 여관에서 들려오는 귀에 익숙한 만토바공작의 노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다. 그럼 대체 이 시체는 누구란 말인가? 떨리는 손으로 시체자루를 풀어 본 리골레토, 용서를 빌면서 죽어가는 질다를 안고 리골레토는 가슴이 터지는 고통을 느끼며 절규한다. 아, 저주받을 영혼이여! 다른 사람의 불행을 터무니없이 비웃어 대던 리골레토는 몇 곱절 더한 고통으로 되돌려 받으며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삶의 희망을 그렇게 잃고 말았다. 끝없이 울고 싶은 심정이지만 걸으면 내내 웃어야 하는 서글픈 광대 리골레토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딸을 안고 인생에 가장 처참한 순간을 맞게 되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다.

“비눗말뚝바”^기情 있는 춤판 고성오광대 정기공연

글 / 김대진 (고성신문 기자)

고성오광대가 지난 7월 10일 고성군 하이면 체육공원에서 정기공연을 펼쳤다. 무더운 날씨에 소나기도 쏟아졌지만 모처럼 박수치며 소위 말하는 신명에 흠뻑 빠져든 공연이었다.

현장에 도착하니 고성오광대 회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넓은 운동장에는 벌써 전시부스, 무료 막걸리주점, 국수제공 코너 등 잔치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그런데 공연장 분위기가 묘하다.

공연시간이 4시간 이상 남았는데 시골 촌로들은 벌써부터 막걸리에 웃음꽃이 피어난다. 자식들 도시로 떠나보내고, 오광대 공연 보러 모처럼 예쁜 여름옷 꺼내 입고 외출한 것이다. 이웃동네 “구학덕” “치산덕” “포구덕” 다 모였으니 그간의 화포를 푼다고 벌써부터 마음은 신명으로 가득 찬 것 같다.

공연준비에 바쁜 황종욱 국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 고성오광대가 추구하고 만들어 가고자하는 공연장 분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황국장 : 우리 오광대 정გი공연장만큼은 시장 같은 축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막걸리 한잔에 어울려 소통하고, 그동안 못 보던 친구들도 볼 수 있고, 춤도 추고, 집으로 돌아갈 땐 고등어 한 마리 사두고 마음 뿌듯이 여유를 안고 가는 그런 정이 있는 공연장, 사람 냄새 나는 축제장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고성오광대 정გი공연은 고성군 각 면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정신적 연대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고성오광대가 지역의 자부심과 긍지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현재 고성군민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자 : 독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오광대보존회 사업을 소개해주시죠?

황국장 : 고성오광대보존회 사업은 크게 공연사업과 전수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지금까지 공연 횟수는 800여회 정도입니다. 전수 사업을 하며 38,000명을 가르쳤는데 이 전수사업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그 역사나 인원 면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고성오광대를 대표할 사업은 크게 4가지인데 하나는 4월 달에 한 미국 현지 고성오광대 워크숍, 그리고 이번 정გი공연, 9월말 미국 LA한인축제 초청공연, 10월 23일 3.1아트센터 대극장 기획공연이 그중 핵심 사업입니다.

어느덧 공연은 종반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다. 진도씻김굿이 펼쳐질 때 절을 하며 액운을 쫓았고, 줄타기 공연에서는 모기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하였으며, 고성오광대 이윤석 회장의 독무에서는 다들 그 강렬한 춤사위에 숨죽이며 매료되는 모습이었다.

이날의 공연을 보며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사람 사는 情'을 고성오광대와 그 이웃들이 지켜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하이먼 체육회에서는 마을주민과 손님을 위해 빵과 음료를 준비하고 부녀회에서는 국수를 삶고 청년회에서는 막걸리 주점을 준비한다. 다른 단체에서는 돼지고기와 과일도 준비한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전통이 가지는 나눔이며 섬김이 아닐까.

특히 고성오광대가 활발한 활동을 하는 데는 경남메세나협의회 결연사업을 통해 3년째 후원하고 있는 경남은행의 도움이 크다고 한다. 경남은행은 고성오광대 활동을 지원하고 고성오광대는 지역민에게 우수한 문화예술을 통한 신명과 감동을 선사하니 기업과 예술의 진정한 나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성오광대의 역사는 벌써 반백년이 넘었다. 누구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쉽 없이 달려온 것이다. 이제 나도 내 몫을 받았으니 당당히 공연장에서 돌려 줄 것이다. 힘찬 추임새로... 얼~썩 좋대! 🌸

“꽃마차는 달려간다”의 주역 배우들

경남의 극단들은 한 해 한 번씩 ‘경남예술극단’이란 이름으로 공동작품 활동을 한다. 올 해가 십년 째다. 강산이 한 번 바뀔 정도의 시간동안 호흡을 맞춰서 일까. 올 8월 창원과 진주에서 공연이 된 ‘경남예술극단’의 “꽃마차는 달려간다” 에서 관 짜는 영감 홍순보와 그의 유일한 말벗인 중국집 사장 오동춘 역할을 맡은 두 배우들은 환상적인 호흡으로 경남의 관객들을 웃기고 울렸다. 극단 <장자번덕>의 한갑수씨와 <현장>의 최동석씨를 만났다.



전국의 관객을 경남으로 불러 모을 배우 _ 한갑수

한갑수(43)씨에게는 경남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누구에게나 ‘첫 이 있다. 수증기처럼 더운 첫, 뭉쿨뭉쿨 전율하던 첫 무엇’¹⁾. 거창고등학교 연극반에서 단역을 맡았던 열일곱 살 소년은 학교 강당 무대에 선 그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 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서 정념과 향기가 스르륵 나가는 것을 느낀 것이다. 장래나 사람 된 도리를 생각하면 공부나 농사 또는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야겠지만 그것으로는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첫 무엇을 잊지 못하던 그는 거창에 있던 극단을 기웃거렸다. 하지만 소아마비로 다리가 아주 약간 불편했던 그는 거창의 교사들이 중심이 된 극단 <입체>에서 조명기를 붙잡고 라면을 끓였다. 그렇게라도 연극의 공기를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1년 정도 더 지났을까. 단역 배우의 불참덕분에 가마꾼 1로 그는 드디어 무대에 올랐다. 물을 만난 그는 무대에 선 지 2년 만에 경남연극제 연기상을 거머쥐었다. 내친 김에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상을 받았다. 연극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10년을 보내면서 경남에서 주목 받는 배우가 됐다. 생활고로 3년간량을 떠나 있다가 연극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던 그는 돌아와 <입체>와 진주의 극단 <현장>에서 작품 활동을 하던 중 2000년 밀양연극촌의 이운택 선생에게 발탁이 됐다. 그의 탁월한 연극성과 문학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누구에게나 ‘첫 무엇’ 이 있지만 그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내는 사람은 드물다. 경남을 대표하는 연극배우 한갑수씨는 살아 났을 뿐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것이 많다. 올 8월 “꽃마차는 달려간다” 에서 주인공 홍순보 역을 맡아서 후배인 최동석씨와 한 호흡으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극단은 달랐지만 오랫동안 경남지역에서 함께 꾸준히 활동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20여 년 동안 80여 편의 작품에 출연, 무대에 오른 것만 해도 1000회가 되는 그에게 이제 남은 숙제가 있다면 연극배우 한갑수의 이름만으로도 또 그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전국의 관객들이 경남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것 아닐까?

1) 김혜순 시의 ‘첫’ 중에서 발췌



나는 행복한 경남의 연극배우 _ 최 동 석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의 첫 공연인 극단 현장의 아동극 <쿵쿵쿵 고물 놀이티>에 대한 꼬마 관객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한 눈을 팔고 마는 꼬맹이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아버린 주역배우 최동석(35)씨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한 보호자가 물었다.

“어디에 있는 극단입니까?”

“저희는 진주에서 왔습니다”

“진주라구요??” 놀라움과 의아함이 내포 돼 있다. 차마 입에서 꺼내지는 못했지만 지역에 있는 극단에서 이렇게 완성도가 높은 연극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바로 다음 날 함양에서 예정된 공연 준비를 위해 바빠 움직이는 최동석씨를 보면 지역 연극계를 설명할 때 꼬리표처럼 붙는 ‘열악’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이는 올 8월 “꽃마차는 달려간다” 에서 함께 공연한 한갑수씨 같은, 최동석씨에게는 선배뻘이 되는 배우들을 비롯한 연극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동석씨는 일찍이 초등학교 시절에 스크루지 영감이 돼 개천예술제 무대에 올랐다고 한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예회를 하면 전교생을 휘어잡았다. 부모님의 반대로 연극영화학과 진학은 접고 진주지역의 한 대학에서 전자과를 다녀야 했지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 법, 연극 동아리 활동으로 대학시절을 고스란히 바친 뒤 진주지역의 극단 현장의 배우로 연극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 현장의 주역 배우로, 경남연극제 연기상 수상 등 승승장구하던 그는 3년 전 부터는 몸의 움직임이 탁월한 배우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고재경 마임리스트와 함께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경남의 마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도 지역 방송사의 리포터로, 연극인 강사로도 뛰고 있으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리만치 바쁘다. 그만 보면 지역에서 연극배우 할 만도 하고 스스로 대견해 여길 법도 한데, 긴장과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는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의 연극인들이 설 무대가 많아졌고요. 관객들도 서울의 대학로만을 생각지 않고 지역의 극단에서 하는 작품에서 서서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관객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의 관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안겨 드리는 공연을 선사해야죠”



경남메세나 사업소개

1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결연 사업



▶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티켓구매, 사내 여유허간, 직원 자원봉사 등을 지원
-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및 직원예술교육, 공연초대,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을 지원

▶ 2010년 50개팀 결연목표

- 2008년 29개팀 결연, 2009년 45개팀 결연, 2010년 9월 현재 47개팀 결연확정

2010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 경상남도와 함께하는 “중소기업과 예술의 만남”

- 중소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상남도에서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

▶ 최소 비용으로 2배의 효과를 얻는다!

- 기업의 예술지원 참여 확대로 공공 예산의 2배 효과
- 최소 비용으로 기업을 홍보하고 마케팅에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 2010년 경남도 지원금 총액 : 4억원

- 2010. 9월말 현재 중소기업 40개팀 결연확정
- 2010. 9월말 현재 840백만원 지원확정(기업지원금 462백만원/도지원금 378백만원)

2

회원사협력사업
(기업을 위한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 찾아가는 공연

- 기업내 각종 행사 시 직원 및 직원가족과 고객을 위해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공연을 제공
- 2010년 : 경남자동차판매(주) 고객감사신년회, 포스코특수강(주) 창립기념식, 한국항공우주산업(주)스승의 날 기념식, ONE 공장확장이전식, 흥기종합건설(주) 무사고 기원 우리가족 한마당 외

▶ 예술동아리 지원

- 사내 동아리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예술강사,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
- STX조선해양(주) 통기타 동아리 '통소리' / 동환산업(주) 독서동아리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락밴드 'WING'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풍물패 민예

▶ 미술작품 대여사업

- 도내 작가들의 수준 높은 미술작품을 기업체에 대여·전시
- (주)포스텍 / STX종합기술원 / (주)화성 외

▶ 예술기행

- 회원사 직원 및 가족에게 도내 문화예술체험 제공
- 2010년 5월 통영예술기행, 9월 하동예술기행 실시

▶ 문화공감

- 회원사 대표에게 도내 문화예술회관의 우수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

▶ 지정기탁 사업

- 결연지원금 이외 회원기업의 지역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금(행사 협찬, 후원 등)을 협의회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 문화경영도서보급 사업

- 문화경영 아이디어 획득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우수도서 보급
- 2010년 창의적 CEO를 위한 문화경영도서 '오리진이 되랴' 배부

3

문화
나눔사업

▶ 찾아가는 메세나

- 사회복지시설, 농어촌학교 등 문화소외계층을 방문하여 문화예술 공연
- 2010년 상반기 도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민속가면극 '창원오광대' 공연 실시

▶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양육 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연 관람 기회 제공
- 2010년 10월 2일 창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50여명과 뮤지컬 '알라딘' 관람

4

연구 및
홍보사업

▶ 홍보지 <경남메세나> 발간

- 2008년 5월 창간 / 연3회 발간/기업과 예술단체 결연활동 소개 등
- 도내 대기업, 중견기업 / 회원사 / 예술단체 / 유관기관 등에 3,000부 배부
- 회원사 직원과 예술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경남메세나 편집위원회 운영
- 2010년 7월 제7호 발간, 10월 제8호 발간

▶ 문화경영 세미나

-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예술을 경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
- 2010년 7월 창원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개최

▶ 예술경영아카데미

- 예술단체의 운영능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
- 2010년 8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5

경 남
메세나대회

▶ 2010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12월 2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
- 행사내용 : 메세나 갤러리 / 경남메세나상 시상식 / 축제한마당(CEO공연, 기업예술동아리 공연) 등

▶ '2010 경남메세나상' 시행

- 메세나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지역경제와 문화 예술의 균형발전에 헌신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시상
- 기업(기업출연 재단 포함)부문, 개인 부문, Arts & Business 부문, 문화예술영재 부문

6

신규회원
모 집

- ▶ 도내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타겟 기업 : 도내 대기업 / 중견기업(매출액 50억원 이상) 및 기업관련 단체

- ▶ 2010년 9월말 현재 회원사 : 170개사

2010 하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지난 9월 30일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2010 하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을 개최했다. 전날에는 진주 동방호텔에서 서부경남지역 5팀의 결연식도 진행됐다. 결연식에 앞서 서부경남에서는 '기업문화경영의 이해' 라는 제목으로 한국메세나협의회 이병권 사무처장의 특강이 있었고 중부경남에서는 '예술을 통한 기업문화의 창조성' 이라는 제목으로 (주)코글로닷컴의 이금룡 회장의 특강이 있었다. 문동성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립 3주년을 맞는 올해는 그동안의 노력

에 대한 결실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결연식이 진행되었고 '다별문화' 와 '경남국악관현악단 휴(休)' 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축하의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에 결연한 팀은 다음과 같다.

- △무림페이퍼(주)_진주챔버오케스트라△산골농장_산청민속보존회△인산죽염촌(주)_김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장생도라지(주)_이상근기념사업회△한국자연환경(주)_사다별문화△경남스틸(주)_동서미술상운영위원회△(주)경남신문사_경남아방가르드양상블△경남에너지(주)_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경남자동차판매(주)_통영웃칠미술관△고구려_경남국악관현악단△(주)고려철강_가곡전수관△삼원테크(주)_난리굿패어처구니△상남굿모닝내과병원_경남영화협회△신대양(주)_예술단 '樂'△신화철강(주)_트루베르챔버오케스트라_극단미소△우수AMS(주)_경남문인협회△(주)정문애드테크_경남불교미술인협회△(주)현대기업_경남관악합주단△(주)화성G&I_창원시청소년관현악단

서울이비인후과 정태기 원장, 네팔 학교건립을 위한 미술품 자선경매 열어

서울이비인후과 정태기 원장은 네팔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운영을 돕고자, 지난 10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네팔교육나눔을 창립하면서 미술품 자선경매를 열었다. 메세나 결연으로 인연을 맺은 대안공간 마루에서 40여점의 작품을 기증하였고, 이날 모든 작품이 팔려나가 자선의 의미를 고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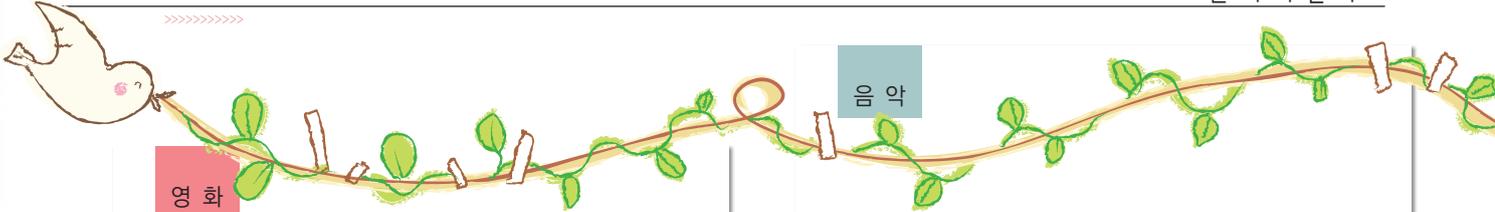
경남스틸 창립20주년 고객사 초청의 밤

경남스틸(주)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4일 풀만호텔에서 기념식 및 고객사 초청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결연 단체인 '경남재즈오케스트라'가 멋진 공연을 펼치며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었다.



경남에너지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

경남에너지(주)는 오는 10월 30일 창원 용지공원에서 경남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대회를 개최한다. '가스 안전 및 환경사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문화 발전과 어린이들의 창작활동 및 정서함양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영 화



<경남영화협회>

제4회

“경남독립영화제”

경남영화협회는 경남지역 독립영화 감독들의 작품을 한곳으로 모아 대중에게 알리는 동시에 지역 신인 작가 발굴의 장으로서 '제4회 경남독립영화제'를 개최한다. 경남영화의 저변 확대 및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획한 이 행사는 독립영화 상영 관객과의 대화, 희구영화 포스터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장 소 : 메가박스 창원
- 일 시 : 2010년 11월 11일(목) ~ 14일(일) 19시
- 개막식 : 2010년 11월 11일(목) 19시
- 문 의 : 사무국장 박재현 010-5034-9073

음 악

<이상근기념사업회>

“2010 이상근 국제 음악제”

20세기 한국 현대음악을 개척한故 이상근 선생의 음악세계를 기리고, 한국음악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음악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이상근기념사업회에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진주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2010 이상근 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 이상근 음악의 밤, 명연주가 초청공연, 거리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음악제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 장 소 :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 일 시 : 2010년 11월 3일(수) ~ 7일(일)
- 문 의 : 진주시청 유덕희 (055)749-5276

전 시

<조성제사진전>

아름다운 동행, 함께 해요

조성제사진전

환경사진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원광종합건설(주) 조성제 대표 이사는 오는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창원성산아트홀에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의 수익금은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라 더욱 뜻깊은 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장 소 : 창원성산아트홀 제4전시실
- 일 시 : 2010년 11월 23일(화) 18시 30분 ~ 28일(일)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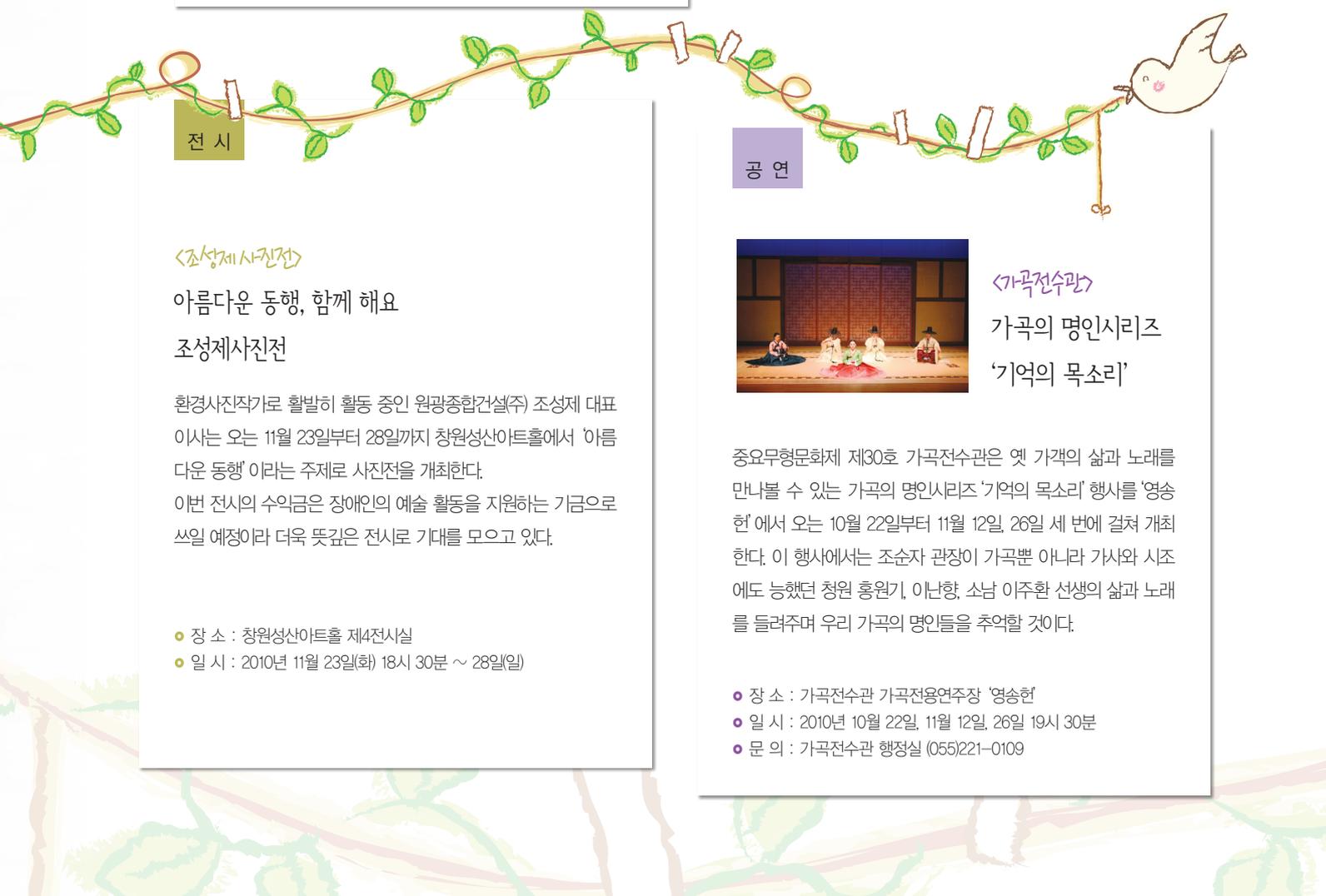
<가곡전수관>

가곡의 명인시리즈

‘기억의 목소리’

중요무형문화제 제30호 가곡전수관은 옛 가객의 삶과 노래를 만나볼 수 있는 가곡의 명인시리즈 '기억의 목소리' 행사를 '영송헌'에서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 26일 세 번에 걸쳐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조순자 관장이 가곡뿐 아니라 가사와 시조에도 능했던 청원 흥원기, 이난향, 소남 이주환 선생의 삶과 노래를 들려주며 우리 가곡의 명인들을 추억할 것이다.

- 장 소 : 가곡전수관 가곡전유연주장 '영송헌'
- 일 시 : 2010년 10월 22일, 11월 12일, 26일 19시 30분
- 문 의 : 가곡전수관 행정실 (055)221-0109





경남메세나 8호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다섯분께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010. 11. 15 까지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gnmecenat.or.kr) [정보가 있는 공간] ▶
[메세나지] ▶ [소감문 남기기] 이메일(gnmecenat@gnmecenat.or.kr)

- ❶ 이번호를 읽고 난 후 느낌이나 소감을 적어주세요.
- ❷ 이번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칼럼 3개를 적어주세요.
- ❸ 다음호에 추천하고 싶은 칼럼의 주제를 적어주세요.

지 난 호 소 감

01. 대신미술관 허지현

- ❶ 구체적인 결연식 내용과 신규결연팀의 소개로 인해 메세나의 존재, 인식, 가치가 더 가깝게 다가 올수 있었던 것 같다.
- ❷ 1.유치환이야기(구체적인 이야기가 감동이었다) 2.직원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일깨우는 문화예술공연(삼원테크) 3.경남의 21세기 경쟁력 예술에 찾아야 합니다(경남예총)
- ❸ 기업과 예술단체는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매회 실려 있다. 그 사례뿐만아니라 메세나로 인해 기업의 발전된점, 혹은 예술단체의 유익했던 점들의 비중이 더 컸으면 좋겠다.

02. the큰병원 백경희

- ❶ 이번호에는 우리병원 소식이 실려 더욱 애착을 가지고 보았다.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매력적이지만 그 뒤에 숨은 노력이 참 많다. 이번 경남메세나 회보에서도 그런 고민,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특히 표지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결연을 맺은 단체-기업 간의 소식을 다양한 형태로 소개한 부분이 참 좋았다.
- ❷ 1.개인적으로 the큰병원 칼럼 : 병원의 언론보도 홍보자료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2.진해에 위치한 (주)포스텍의 직원들에게 '가훈의 직접 전달' 3.챔버갤러리를 사랑하는 초보 큐레이터
- ❸ 추천하고 싶은 칼럼은 기업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음악가, 예술가를 소개해 심층인터뷰를 실어 조금 더 예술에 대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칼럼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호, 그 다음 호가 더욱 더 기대됩니다. 경남메세나 화이팅!!

03. 농협경남지역본부 노춘석

- ❶ 메세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개인적으로 예술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음.
- ❷ 1.메세나 사업소개 2.기업과 예술의 만남 3.예술과 여행
- ❸ 예술과 문화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밌는 스토리 컬럼을 소개해 주셨으면 함.

04.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박상선

- ❶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기업의 이미지에서 많은 부분 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21세기 경쟁력, 예술에서 찾아야." 라는 문구가 참 좋아요.
- ❷ 1.예술과 삶 : 청마 유치환 2.기업과 예술의 만남 : 지역 공동체와 문화 예술의 감동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기업 3.문화와 나
- ❸ 기업간의 문화 동호회의 교류 또는 교류한 전시 공연에 관한 컬럼 기업끼리 공연 예술로 함께하는 상생의 협력 기업들

05. 포스코특수강(주) 박소현

- ❶ 매월 경남 메세나를 받아보면서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과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정보들을 공유하게 되고 업무에 활용할 아이디어를 구하게 됩니다.
- ❷ 1.찾아가는 공연 ONE 2.우리회사 메세나 3.기업과 예술의 만남
- ❸ 메세나 결연을 기다리고 있는 문화 단체 소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퓨전국악, 재즈, 비보이 팀 등을 소개하고 이들의 공연소식을 전한다면 서 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제안하는

문화송년회



품격있고 특별한 송년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클래식, 팝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등 공연의 감동과 참여의 기쁨이 함께하는 문화송년회.

고객·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송년회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업체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합니다.

* 송년회뿐 아니라 신년회, 직원연수,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기업회원사에는 행사 비용의 50%(100만원 한도)를 경남메세나협회가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1부 제출(경남메세나협회의 홈페이지 www.gnmecenat.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주요 프로그램 *

7080 추억의 팝과 영화음악 / 세대공감 옛 가락의 신명 / 품격있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퓨전음악회 / 전직원이 참여하는 100인의 사물놀이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행** 아름다운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

메세나의 어원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Caius Cilinius Maecenas)의 인명에서 유래

1967년 미국의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칭



COVER STORY

고성오광대의 하이먼 정기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는 국내와 해외에서 공연사업과 전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반백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과 결연함으로써 우수한 문화예술을 통한 신명과 감동을 선사하는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